



2014 **2**

마산고등학교 제21회 동창회

통권 제350호

발행 : 지해경 010-8208-6363 / 총무 : 김석백 010-5488-9871

편집:제갈선광 010-5146-4925 / mail : chegal44@gmail.com

■■■
취임사

한해를 부탁드립니다



본부회장 / 지해경

甲 午年 靑馬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본인이 금년 한 해 동안 자랑스러운 마고 21기 동창회 본부회장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 번씩은 다 말아야 할 일이기에 작년 정기총회 시 부회장직을 선뜻 수락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일 년이 지나 회장직을 맡았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본부회장으로 크게 수고하여 주신 우용태 전회장님과 김석백 총무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동창회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물심양면으로 기여하여 주신 모든 동문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찬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우리 동창님들 모두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항상 웃음과 하시는 일들이 원만하게 잘되고 행운이 내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무튼 금년한해 본부회장으로써, 유임된 김석백 총무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은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동창회 수입지출내역 2014년 1월

수 입			지 출		
적 요	금 액	비 고	적 요	금 액	비 고
회비	310,000	박소학 정의건 각15만	식대	450,000	산호생오리집
		곽영식 1만원		210,000	회보인쇄 및 봉투
회비 (전년도)	220,000	전기용 10만원	회보제작	67,000	발송비
		이아인 7만원		200,000	전임회장 위로금
		장정지 5만원			
회보분담금	1,000,000	송일성 재경회장			
			수당	150,000	총무
수입계	1,530,000		지출계	1,077,000	
전월이월	5,121,667		차기이월	5,574,667	
합 계	6,651,667		합 계	6,651,667	

중국인이 인터넷에 올린 웃긴 글...

중국인이 인터넷에 올린 웃긴 글입니다.

上帝缺主席了，于是曼德拉去了！
 上帝缺手机了，于是乔布斯去了！
 上帝缺舞伴了，于是杰克逊去了！
 上帝缺司机了，现在保罗沃克去了
 万能的主啊！你缺狗不，请把安倍晋三请去吧！

번역 :

신께서는 대통령이 부족하시자 만델라를 데려가셨고,
 핸드폰이 없으시자 잡스를 데려가셨고,
 댄스 파트너가 없으시자 마이클잭슨을 데려가셨고,
 운전기사가 없으시자 폴 워커를 데려가셨다.
 전능하신 신이시여, 혹시 '개'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제발 쪽발이 아베 신조 좀 데려가시죠!

회보제작 협찬금 감사합니다.
 재경 동창회에서 2014년도 회보제작분담금
 100만원을 완납하셨습니다.

재경동창회 카페 : <http://cafe.daum.net/mshs21>



이 날은 신년도 1월 월례회 겸 정기총회로써 사전에 산호초교 옆 맛있는 생오리집으로 예약하여 많은 동문들이 참석할 꺼라 예상하였으나 마침 조류AI병원성으로 인하여 건강에 민감한 동문들이 불참하다보니 평소보다 적은 인원으로, 18:20에 식순에 의거 우용태 회장의 인사에 이어서 김성규 감사의 세밀한 감사내역 설명과 참석동문들 모두가 유인물을 자세히 읽고서 결산보고에 큰 박수로써 승인을 끝낸다.

임원개선에서 내년도 회장후보를 물색하다 마침 김용인 동문이 정안정 동문을 추천하여 3번이나 연속 박수 속에 정 동문이 빙긋이 웃으며 흔쾌히 수락하여 부회장으로 선임되고, 지해경 동문이 회장으로 자동승계되어 김석백 총무가 한해 더 연임해 달라는 부탁에 이를 승인함으로써 2014년도 본부회장 지해경, 부회장 정안정, 총무 김석백 동문으로 임원개선을 끝낸다.

이날은 마침 서울 송일성 재경회장과 전승치 동문이 참석하여 금년도 할당된 회보분담금 일백만원 전달에 많은 박수를 받고서 본부 정기총회 시에는 서울회장단 초청을 관례적으로 하기로 약속하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동창회 사랑방 관리와 청소에 많은 노고를 한 정정용 동문과 사랑방 방장으로 금전관리를 잘하여 80만원의 수익을 창출한 이종량 동문에게도 많은 박수로써 화답하다. 토의 및 건의사항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 마지막으로 남은 잔을 금년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축배를 들고 삼삼오오 아쉽게 헤어지다.

지난해 한 번도 월례회에 참석하지 않은 몇몇 동문들이 총무의 노고를 위로한다고 식사대접하면서 연회비에 찬조금까지 낸 동문들에게 새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석자<38명>

구해룡 김기정 김기태 김기현 김방태 김범영 김성규 김순철 김순택 김용인 김정수 김준형 김태욱 박영환 박소학 배종길 변재국 손기홍 손동개 신창한 우용태 이무일 이성환 이영부 이종섭 이종량 장영의 전기용 정안정 정의건 정정용 정종필 정창봉 조정용 지해경 김석백 재경 : 송일성, 전승치

2014년도 본부동창회 회장단

회 장	지 해 경	010-8208-6363
부 회 장	정 안 정	010-4450-6422
총 무	김 석 백	010-5488-9871
감 사	김 성 규	010-5577-6636
	우 용 태	010-9301-2223

본부동창회 계좌 : 김석백(국민은행) 651401-04-343779



이상 하게 구경 명절이 지나야만 ‘새해’ 라는 기분이 드는 건 웬지 모르겠다. 힘들었던 지난해를 무사히도 넘겼다 싶어 감사할 뿐이지만 올 한 해도 무탈하게 보내고 싶은 희망을 가지면서 신년회를 시작했다.

새집의 세간정리에 바쁜 성태, 제주도 여행 중인 호기, 족구동호회 행사 중인 신평이, 월말 세무업무정리에 매달린 성업이, 독한 감기에 곤혹을 치루고 있다는 장우가 새해 첫모임에 불참이 아쉽다며 연락이 왔지만 준태로부터 건강회복중인 대균이 소식과 장기간 무릎관절로 고생한 수용이와 부산과 마산지역구를 가리지 않는 길보가 나타나 반가움을 더해 19명의 친구들이 신년인사를 나누면서 회의를 시작했다. 이 의승 회장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동기회에는 좋은 일만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며 건배를 했다.

쌀쌀한 날씨 탓에 따끈한 ‘해물감자탕전골’이 제격으로 오가는 술잔에 담긴 담소들이 한결 넉넉해 보였다. 수용이가 무릎관절의 고통으로 겪은 병력체험담으로 건강을 당부했고, 영민이가 허리통증과 무릎관절의 건강연관성을 얘기하자 종길이가 뭐니 뭐니 해도 무릎관절치료에는 ‘춤’이 최고라면서 왕년의 직업 본색(?)이 옛보여 웃음을 사기도 했다. 반가운 소식 하나는 만웅이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중앙테크’라는 IT계통 법인회사를 설립하여 좋은 체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경영대박을 기원했다.

회의를 끝내면서 원일이가 작은 영양 케익 하나씩을 나눠주면서 1년간 수고한 회장에게도 손을 잡았다.

신년회 참석자<19명>

권기욱 김성광 김수용 김준태 김효석 나길보 남원일 박진형 박청길 송길영이의승 정종길 정현경 조영민 조창식 조창제 최진화 하만웅 황선치

‘탈무드’에 보면

늙음을 재촉하는 요인으로 두려움, 노여움, 증오, 불신 이라고 알려 주고 있다.

좀 더 젊게, 靑馬의 기상을 살리기 위해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마음속에서 몰아내야 하겠다.

‘9988234’가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2~3일 앓고 죽자’가 아니라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23살짜리와 4(사)키자”는 의미로 진화되고 있는 현실은 왜 모르는가.

동문동정



- ♣ 정종길 동문
동문의 도로명주소입니다.
부산시 동래구 금강원로60번길 28 (온천1동)
휴대폰 : 010-7757-4009
- ♣ 천성태 동문
동문의 도로명 집주소입니다.
부산시 동래구 쇠미로 119(사직동)

- ♣ 흥창우 동문
동문께서 지병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가료 중입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 ♣ 본부 기우회소식
지난 1월16일, 본부동창회사무실에서 기사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제1회 바둑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우승: 우용태
준우승: 손동개, 신창한

나의 진정한 재산목록은?

평소에 재물보시하기를 즐기는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그 나라의 왕은 그의 재산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궁으로 불러 들여 꾸짖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주제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기에 남을 돕는 것이냐? 너의 재산목록을 가져오너라.”

상인은 집으로 돌아와 부지런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그의 집과 전답, 가재도구나 돈 등의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가난한 이들에게 쌀을 주고 옷을 준 일이며, 아픈 사람들에게 약을 지어준 것과 배고픈 짐승이나 새들에게 먹이를 준 일 등을 죄다 기록하여 왕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기록을 살펴본 왕은 노여워하면서

“이놈아, 너의 재산목록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어찌 이따위 내용을 적어 왔느냐?” “대왕이시여, 저에게 이것이 최상의 재산목록입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집과 논밭과 돈과 패물 등은 전부 남에게 얻은 것이요, 언젠가는 남에게 넘어갈 것들입니다. 어찌 이러한 재산을 감히 ‘저의 것’ 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오나 여기에 기록한 것들은 감히 ‘저만의 것’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저의 보시공덕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잃어버릴 염려가 없으며 결코 파괴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보시는 튼튼한 배가 되어 저를 저 피안의 언덕에 이르게 해 줍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에 보시한 것들이야말로 저의 진정한 재산목록이지 않겠습니까?”하여 그 내용을 낱낱이 적어 바친 것입니다.

상인의 말을 듣고 환희심이 일어난 왕은 크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오 그대는 참으로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이다. 그 대의 말대로 진정한 나의 재산은 보시를 한 것뿐이요, 나머지는 다 돌고 도는 공동의 재산일 뿐이다. 그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좋으니 앞으로도 많이 보시하여라.”

이야기 속의 상인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남에게서 얻은 것이요, 언젠가 되 돌려 주어야 할 것임을 진작에 깨달았다면 일찌감치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형편 따라 능력껏 나누어 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내가 가진 재산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에 집착하여 꼭 쥐고만 살았기에 이제껏 진정한 나의 재산이라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내 나이가 어째서”의 노랫말이 풍자하듯 나이는 분명 숫자에 불과하니, 새해부터는 돈이 없으면 몸으로 봉사하고 직장을 얻지 못해 방황하는 젊은이는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는 말로 바로 잡아주며, 어려운 이웃은 넉넉한 마음으로 보살피는 일 등으로 언젠가 올 그날 염라대왕이 “왜 이렇게도 인색하게 살았냐?”하는 질책에 변명할 거리라도 마련할까 합니다.

불교 실행연구원에서 매달 발간하는 <범공양>의 불기2557년 1월 호에 게재된 김현준 법사님의 “큰 복을 담은 보시”에서 예로 든 이야기말미에 사족을 달아보았습니다. 동창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한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2558년 음력 선달그믐 배종길 합장

탱자꽃

버스 정류장 가게가 비었네
차 탈 손님이 넷이나 되는데
차도 올 때가 되었는데
표 파는 사람이 없네
가게 물건 다 집어가도 모르겠네

뒷담 울타리 옆에서
생글거리며 나타난 옥자는
표는 안 팔고, 양손 물기만 연방 쳐내며
얼마나 미안한지, 뭐 그리 미안한지
얼굴이 빨개져 웃기만 하네

옥자는 빨강고
그녀가 쫓아 나온 울타리엔
하얀 탱자꽃이 피었네



<건강> 충격악술논문 '술 안 마시면 더 일찍 죽는다'

internet

좀 오래된 논문이지만, 폭음하는 사람이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이 밝혀져 학계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와 텍사스 주립대학(오스틴) 연구팀은 최근 '알코올중독: 임상실험 연구' 학회보에 논문을 발표, 지난 20년 동안 1,8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55~65세 사이의 노장년층으로, 음주와 수명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를 주도한 찰스 할러헌 교수는 하루 1~3잔을 마시는 적당량의 음주자(moderate drinker)와 3잔 이상을 즐기는 폭음자(heavy drinker)그룹의 사망확률이 비음주자(non-drinker)그룹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비음주자는 20년 기간 동안 69%가 사망했지만 폭음자는 59%, 그리고 적당량의 음주자는 41%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할러헌 교수는 하루 3잔 이상은 권장 소비기준을 넘어서 알코올 중독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1~3잔 가량의 술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풀이했다.

이 같은 보고서는 폭음이 간과 심장을 해치고 구강암을 유발하며 가정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기존의 학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할러헌 교수는 '건강을 위해 한잔(drink to your health)'이라는 속설이 이번 연구결과 적중했다고 지적했다.

원고접수 E-mail : chegal44@gmail.com

는 그리움이 있고, 낯선 것에는 설렘이 있다고 했던가. 친구들 면면을 보니 그저 반갑기만 하고 생판 모르는 청계산을 찾는 마음도 눈발까지 날려주니 더욱 설레이기만 한다. 한편 초행이라 친구들이 없으면 어떻게 찾아가나 괜한 걱정이 후회스럽다. 청계산을 찾는 등산객이 줄을 이어 뒤만 졸졸 따라 붙어도 초입은 저절로 찾아지는걸..

서초구 원터골 표시를 따라 고속도로 밑길로 들어 조금만 올라 오른쪽으로 꺾어들면 아웃도어 판매점들이 줄을 이었고 몇 발작 더 오르니 큰 청계산 안내도가 마중을 나와 있다. 오늘 산행코스는 원터골-원터고개-4924봉-굴바위-매바위-매봉-청계산-원터고개-옥녀봉-진달래능선으로 원점 회귀한다는 산행대장의 설명을 듣고 가볍게 출발을 한다. 발길을 따라 오는 계곡에는 얼음과 바위 위로 온통 하얀 눈이 살포시 내려앉아 환상적이게 눈을 즐겁게 해주니 발걸음이 더 가볍다. 왼편의 작은 다리를 건너면 매봉까지는 2.1km라고 팻말이 알려주고 자연석돌 계단길은 완만하게 이어진다.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한참을 오르면 나무계단과 통나무 받침 계단이 점차 숨을 헐떡이게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너거가 직일라모 곱게 직이지, 이렇게 힘들게 직일라꼬 작정을 했다” 라며 원성이 터지기 시작한다. 카든가 말든가 못 들은 척 꾸역꾸역 오르니 이마에는 벌써 땀방울이 송골송골하고 가슴골로 땀이 쪼르륵 흘러내린다. 계단길은 지겹도록 이어 지지만 그래도 조금 전에 내렸던 눈이 사방을 하얗게 해놓은 덕분에 정경은 그저 한 없이 즐겁다.

40여분을 올라 청계산 원터골 생태경관 보전지역 쉼터에서 한숨을 돌린다. 심심했던지 허양도 친구가 괜히 박광지 친구에게 시비를 건넨다.

“쪼쨌은 기 운제 저리 커가지고 따라 땡기는지 참 용타!!”

그 소리를 듣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박광지가 아니지.

“지랄하고 있네, 지는 용인이 하고 비슷하면서 까불고 있네!!”

난데없이 김용인이를 팔아먹고 말았다.

그러자 옛날이야기가 쏟아져 나온다. 송종선 친구가 허호 친구를 보고 쪼쨌은 기 까분다고 하여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고 하고, 똑같은 두 놈이 도토리 키 재기를 하고 있다고 모두가 한마디씩 타박을 건네주며 한참을 잡담과 웃음으로 피로를 때우고 갈 길을 재촉하여 주섬 주섬 챙겨들자 까마득한 계단길에 한숨소리와 원망의 눈초리가 다시 돌아온다.

무겁게 한 발짝 한 발짝 5분 여 용을 쓰고 보니 등성이에 달고 이제부터는 보상이라도 해주듯 부드러운 흙길이라 모두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내리막길에는 룰루랄라가 저절로 나온다. 능선길을 지나면 어느새 원터골쉼터에 다다르고 다시 계단길로 오르면 매봉까지는 1.1km 가 남았다고 하니 금세 안색이 어두워진다.

엄청 가파른 계단길을 활짝거리고 오르며 아무도 입을 떼지 않아 조용한 게 심심해서 “와 이리 조용하노?”

한마디 했더니 허호 친구가 “기 빠지니까 씨부리면 안 된다”고 핑계만 돌아온다. 모두 그 말을 믿는 듯 아무도 입도 벙긋 않고 묵묵히 오른다. (다음호에..)



가끔씩 성남관교에 있는 딸네 집에 가다보면 지하철에서 한구역만 더 가면 ‘청계산입구’라는 안내판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러나 서울지리도 생판 모르는 촌놈이라 혼자서는 나설 수도 없고 우짜던지 서울친구들을 졸라 언젠가

서울 **청계산**

한번쯤 꼭 가보리라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이번에 올라와서는 제일 먼저 산행대장인 서종성 친구에게 청계산을 한번 데려가 달라고 애원을 했다. 정성이 통했는지 「목요일 아침 10시 청계산입구역집결」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춤을 추며 날아왔다. 오. 예!!

장정치 (1)

우선 청계산을 알고나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 즐거운 마음으로 인터넷을 뒤진다. 청계산은 서울시 양재동과 의왕시, 과천시, 성남시에 걸쳐있고 정상 만경대에 올라서면 서울대공원과 서울랜드 경마장이 한눈에 들어오고 관악산까지 가까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산이라 정평도 나있다 한다. 풍수 지리적으로는 과천 관아의 진산을 관악산으로 볼 때 좌청룡이 청계산이요, 우백호가 수리산이라 그 기품 또한 당당하다 하니 좀더 더 쑤셔 온다.

부푼 기대감으로 지하철에 올라서니 웬 등산객들이 그리 많은지..... 그래도 별 생각 없이 그럭저럭 청계산 입구역에 내려서자마자 와이구!!!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 등산객들이 너무 많아 앞서사람의 발뒤꿈치만 보고 갔다 왔다는 끈들의 글이 그제야 머리에 떠오르며 뒤늦게 실감을 한다.

똥대기시장도 아니고 그렇게 바글바글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맨날 한적한 곳만 골라 댕기던 나로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러나 어찌랴 친구들을 여기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촌닭 장에 갖다 놓은 꼬라지로 두리번거리고 있으려니 용케도 허양도 친구와 서종성 친구가 손을 흔들며 반긴다.

미아가 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놓고 출구로 나오니 반가운 친구들이 한눈에 확 들어온다. 이석우 친구, 허호 친구, 박광지 친구, 박박중 친구가 차례로 반겨주고 한편 주유삼 친구와 이상환 친구는 나중에 뒤처지면 친구들에게 폐가 된다며 먼저 출발했다는 말을 듣고보니 마음이 쩡해 온다. 늦으면 늦은 데로 슬금슬금 이야기꽃을 피우며 다 같이 걷는 길도 얼마든지 즐거운데..

친구들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는 두 친구의 마음이 참 아름답게 느껴진다. 익숙한 것에

7쪽에 이어짐 -

2014년 2월 월례회 안내

월례회

일시 : 2월 21일 오후 6시
장소 : 쌍용복집 (055-246-6866)
오동동 탐마트 맞은편

21

부인회

일시 : 2월 21일 낮 12시
장소 : 적송식당 (055-295-6936)
합성동시외버스터미널맞은편
(구 행복예식장 네거리에서 마산역 방향으로 10미터 지점)

